

# 강선우 청문회 ‘칩칩산중’... ‘갑질’부터 재산신고 누락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명됐다.

5년간 보좌진을 46번 바꾸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여가부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강 후보자를 전격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이유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공약한 데다, 갑질속 전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16개월 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던 여가부로서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5년간 보좌진 46명 면직... ‘갑질’ 의혹에 배우자 의혹까지 불거져

하지만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여가위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4명이 의원실에 들어왔는데, 14명이 면직됐다.

국회에서는 의원실 간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46명 면직은 이

국회 여성가족위, 14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5년간 보좌진 46명 면직에 갑질 의혹도... 시민단체도 비판 배우자 스톱옵션 신고 누락에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의혹도 해결할 과제로는 성평등부 개편·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꼽아

례적이라는 평이다.

설상가상으로 보좌관들에게 번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등 ‘갑질’ 의혹도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익명공간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는 폭로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자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에서도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했던 바이오업체로부터 받은 6640만원 상당의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비상장기업 B사에서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 대신 1주당 행사가격 6640원 상당의 스톱옵션 1만주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에 이 같은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비상장기업 주식과 스톱옵션 모두 신고 대상이다.

또 2020년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면

서 B사 대표를 지정 토론자로 초청, B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누락은 청문회 때 기회 되면 답변하겠다”면서도 “감사로 재직할 것 자체는 국회에서 관련 심사를 받은 사항이다. 이해충돌은 과한 지적”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으로 1974만원 상당의 유튜브비를 사용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400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각 납부’한 의혹도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별 불공정 바로잡을 것...성평등정책 총괄기능 강화해야”

한편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에 의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논의 과정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며 “개편 과정에서 국회, 관련기관·단체 등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다.

강 후보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과제로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차별없는 일터 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지원 내실화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등 확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폭력 문제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

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제기 초반 민주당 내에서 사건 피해자를 ‘피해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다른 표현으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이 밖에도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와 관련된 잇따른 사퇴와 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성 비위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고, 좌우명과 공직철학은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고,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인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1

## 광주·전남 광역의원 20여 명 ‘단체장의 꿈’ 이뤄지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장의 꿈’을 이루려는 광역의원들이 점차 늘면서 이들의 도전과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은 광주 6명, 전남은 17명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동구 제1, 2 선거구 시의원인 홍기열 의원과 박미정 의원이 나란히 동구청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동구의원 4선에 도전 시의원까지 5선 지방의원이고, 박 의원은 재선 시의원이다.

서구에서는 명진 의원이 출마한다.

광주 6명, 전남 17명 등 23명 기초단체장에 도전

2022년 7명 중 4명, 2018년 12명 중 2명 만 성공

5·18시민수습위원 육고를 치른 고(故) 명노근 전남대 교수와 5·18 당시 기록병원 간호사로 일했고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을 지낸 안성례 전 광주시의원의 딸이다.

복구는 신수정 현 의장이 출전한다. 구의원 3선에 시의원 재선 등 5선 의원으로, 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의 장을 디딤돌 삼아 ‘광주 첫 여성 단체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광산구에서는 정무창 의원과 박수기 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정 의원은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박 의원은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기 하지만 강수훈, 임미란, 안평환, 이귀순 의원의 구청장 도전 가능성도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17명의 의원이 단체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목포의 경우 재선 의원인 전경선 의원

이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광일 의원과 주종섭 의원은 각각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서동욱 의원은 순천시장에 도전한다. 이재태 의원은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뒤 나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에 정치적 기반을 둔 김태균 의장도 광양시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담양을 대표하는 박종원, 이규현 의원도 담양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구례군수에, 화순군의회 재선의원 출신인 임지락 의원은 화순군수 선거에 각각 나설 전망이다. 윤명희 의원은 장흥군수직에 뜻이 있는 것으로 의회 안팎에 전해졌다. 차영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강진군수 도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광국 의원은 무안군수직에, 이철 의원과 신의준 의원은 완도군수 선거에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인정 의원은 진도군수, 김문수 의원은 신안군수 선거에 뜻을 두고 있다.

시·도의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체급을 올린 도전이어서 성적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 도전에 나선 광역의원들의 성적표는 선거 때보다 격차가 뚜렷하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는 광주 1명, 전남 6명 등 모두 7명이 도전장을 내 4명이 단체장에 올라섰다.

광주에서는 23명의 시의원 중 6명이 시장이나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모두 당선에는 실패했다. 정의당 장연주 의원이 광주시장에 도전했다 낙선했고, 민주당 소속 5명은 구청장에 도전장을 냈지만 모두 경선

과정에서 쓴잔을 마시거나 중도 포기했다. 전남에선 58명의 도의원 중 10여 명이 단체장에 뜻을 두고 배수진을 쳤으나, 6명만 공천권을 따내거나 무소속 출마했고, 이 가운데 장성 김한중, 화순 구복규, 영암 우승희, 곡성 이상철 등 4명이 득표율 1위로 당선증을 받았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광주 3명, 전남 9명 등 모두 12명이 광역의원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섰으나, 16.6%인 단 2명만 승리했다.

광주에서는 동구청장에 출마한 민주당 임택 후보가 현역 구청장이던 민주평화당 김성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전남에서는 도의장 출신 명령관 후보가 해남군수에 도전해 과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정현 기자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